

지역 소식통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마을버스 운전원 공개채용

완주군이 시설관리공단 일반 직 신규 7급 마을버스 운전원 20명을 공개채용한다.

2차 공개채용으로 응시자격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정년 범위 내 있는 사람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버스운전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 10년 내 관련분야에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만 응시 가능하다.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접수 기한은 11월 5일까지이며, 이후 필기시험(인성검사) 및 면접 시험을 거쳐 11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채용을 위해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개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고시공고 및 완주 시설관리공단 전용채용사이트(https://wanju2.ncsplus.co.kr/home.do)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용역 중간보고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7일 농업인교육문화센터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용역기관 대표, 생산 농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은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 가공 설비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가공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5월부터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지역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5종), 공정 표준화, 상용화를 위한 기술이전 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상품개발 방향 및 공정 표준화, 시제품 시식 및 관능 평가,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선식 4종, 시즈닝 1종, 육수 3종, 위더젤리 5종, 음료 베이스(칭) 4종을 시식하고 맛, 색, 전체 기호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제품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K종자의 중요성 · 가치 재확인

## ‘2024 국제종자박람회’ 성황리 마무리... 역대 최대 수출 목표 80억원 달성 예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2024 국제종자박람회를 ‘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김창남 (사)한국종자협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송마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종자산업 관련 유관기관, 해외바이어, 시민들과 제20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수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매직트리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국제종자박람회는 우수종자 보급과 수출확대를 위해 올해 8회째 맞이하는 행사로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과 동시에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써 K종자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주요내용으로 비즈니스관과 산업관, 전시포, 학술 심포지엄,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제품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일반인들을 위한 고구마 수확, 씨앗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포토존, 푸드존 등 휴게공간이 운영됐다.

올해는 국내외 종자기업의 품종 및 종자산업 전후방기업의 제품 소개와 더불어 해외 바이어와 참가기업간의 비즈니스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지난 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사전 수출 상담회를, 기간중 비즈니스관에서 초청 해외바이어와 참가기업간 1:1 매칭 상담을 진행했으며 박람회 종료 후 수출성사를 위한 추가상담 및 사후 관리를 진행함으로써 역대 최대 수출 목표 8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4.5ha 규모의 전시포에는 직접 개발한 종자기업의 육종품종,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와 유전자원, 약

용작물, 경관(코스모스길 조성) 및 화훼류 등 총 497품종의 생육상황과 특성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관람객들의 호평을 끌었다.

또한 전시포에 재배된 배추, 무 등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 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인 관람객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많은 분들이 방문했으며, 종자의 가치를 같이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면서 “기후변화 등으로 종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김제시는 종자산업의 단지를 조성·운영해 왔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종자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문화의집 · 삼례생활문화센터가 관내 직장인에게 문화가 있는 삶을 선물하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완주군, 직장인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화의집 · 삼례생활문화센터서 26일부터 총 3회 운영

### 테라리움 · 소가족 활용 제품 만들기 프로그램 등 진행

“열심히 일한 당신, 쉬었다 가세요” 완주문화의집 · 삼례생활문화센터가 관내 직장인에게 문화가 있는 삶을 선물하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주군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위해 ‘심심삼심: 직장인 힐링 프로그램 · 내 마음의 습터’를 오는 26일부터 총 3회 운영할 예정이다.

첫 날인 26일에는 작은 유리병 안에 식물을 키우는 테라리움 만들기, 29일과 31일에는 천연 소가족을 활용하고 실용성을 더한 크로스백 및 키홀더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간에 일하는 직

장인을 위해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네이퍼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완주군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만 참여할 수 있다.

김미경 센터장은 “체험을 통해 직장인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체험과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문화의집 · 삼례생활문화센터(291-0586)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 배후마을 주민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 지원

### 김제시, 5개 배후마을 선정... 주민화합 · 공동체 활성화 모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거점지역 주변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배후마을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송용석)는 상반기 마을활력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공개 모집하여 5개 마을 선정을 통해 마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18일 용지면 마다리마을에서는 ‘빵내음이 솔솔나는 마다리마을’을 테마로 주민들이 직접 빵을 만들어 지역과 이웃에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진보면 남하마을은 ‘주민화합한마당’

을 개최했으며, 부녀회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음식을 직접 준비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공동밥상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을의 발전과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밖에도 공덕면 서리마을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마을 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주민주도 자원순환마을’ 진행 중이다.

만경읍 남리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압록 공예 활동을 통해 서로의 감성을 나누며 공동체 내에서 화합을 다지는 ‘압록달록 꽃에(愛) 물들다’를 진행했다.

용지면 신리마을에서는 자이브 댄스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의 호흡과 온기

를 느끼며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춤으로 활력 넘치는 마을’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춤을 추며 활력을 되찾고 건강과 웃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용지면 신리마을은 자이브댄스 전 북특별자치도 생생마을공동체한마당 행사에 참가자랑 부분에서 3등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배후마을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발굴·지원 함으로써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공동체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며 “각 마을과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고 주민간의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동해시-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 친선교류행사 가져

김제시는 지난 17일 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송연순)가 자매도시 동해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복순)와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화합과 우호증진 및 여성단체 활성화와 협력강화를 위한 친선교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제시와 동해시는 지난 1999년 4월 최초 결연을 맺은 이후 2018년 11월 상호 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연 1회 이상 상호 방문을 통한 지속 교류를 약속했다. 이후 매년 여성지원사업 교류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화합에 앞장서 왔다.

이번 기념행사에서 시는 특산품인 지평선 쌀과 한과, 동해시는 맥태를 교환하며 농특산물 홍보시간을 갖고, 문화해설사의 안내로 동헌과 관아, 벽

골재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류행사는 1박 2일로 진행됐으며, 2일차에는 천년고찰 금산사를 방문, 문화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김제의 역사와 문화를 즐기고,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새만금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김제시의 미래에 대해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차량 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 신호등 시야방해 개선... 교통사고 예방 효과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8일 전북자치도 최초로 동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차량 신호등 보조장치(디지털 LED 신호등)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인 동초등학교 앞 삼거리는 초등학교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보행안전 보호가 필요한 곳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이 보급되고 있는 구역이다.

차량 신호등 보조장치는 기존 3색 교통신호등과 동일한 신호를 표출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등 반영구적인 수명과 안전성을 확보한 디지털 LED 신호등이다.

이 신호등은 강우, 안개 등 날씨의 영향, 전방 대형 차량 등의 시야방해를 개선했으며, 주야간·계절별 상황에 맞는 자동 밝기 조절을 통해 빛 공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전 북 최초로 차량 신호등 보조장치를 정식 설치한 만큼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



김제시는 지난 18일 전북자치도 최초로 동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차량 신호등 보조장치(디지털 LED 신호등)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속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및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